

초등학생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

금지현 · 손장호(대구교육대학교)

I. 서론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03년 기준으로 일일 11,398톤으로, 이는 1990년의 23,003톤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이나 현재 시점으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주변 환경에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사료되어진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005년 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1997년 7월에 개정 한바 있을 만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교육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유기영(1997)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타의 생활쓰레기보다 근원에서부터 감량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즉 초등교육에서부터 구체성을 가진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근본적인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인다면 사회적 파급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그러나 종래의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연구는 특정 단체 또는 성인대상으로 행해진 것이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총괄적인 교육이 초등학생들부터 선행되어져야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조사된 것에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여, 초등 음식물쓰레기 관련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는데 있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5~6학년 학생 집단으로 모집단의 환경을 최대한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로 나눈 후 각각 두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한 학교에서 5학년과 6학년 각 2개 반을 임의로 표집 하여 총 6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식 및 실태가 조사되었다.

2. 조사 도구

이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식습관, 환경교육 및 음식물 쓰레기 관련 문헌의 고찰에 기초하여 조사용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이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관

계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아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5문항,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13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대부분은 5단계 Likert 척도로 개발되었으며, 이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 0.7876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사전에 담당교사에게 충분한 설명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 후, 학생들에게 솔직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배부된 총 600부의 설문지 중 580부를 회수하여 96.6%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이 중에서 불성실하거나 미응답 문항이 많아 통계 자료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8부를 제외하고 572부의 설문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인 SPSS/PC Windows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와 성별, 가족수, 주거형태, 주거지역, 보호자 직업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통계량을 이용한 교차분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 1) 초등학생들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더럽다”가 61.0%로 가장 높으며, “아깝다”, “걱정이 된다”, “아무생각 없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현 대구 및 경북을 기준으로, 어떤 생활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정도의 수는 평균 2.17개 정도였다.
- 3) 대구 및 경북에서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은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높은 점수가 얻어졌다($M=4.05$).
- 4) 쓰레기 종양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수준은 2.83점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05$).
- 5) 음식물쓰레기가 가정에서 수거된 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는 평균 2.75로 나타났다.
- 6) 우리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수자는 평균 0.25개로 나타났어나, 시지역에 주거하는 학생이 군지역에 주거하는 학생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 7) 가정이나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교육경험을 어느정도 받아보았는가에 대해서는 평균 2.63로 나타났다.
- 8) 학교에서 전문적인 음식물쓰레기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3.24로 나타났다. 특히 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요구도가 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요구도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 9)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중 유통기한이 지나서 생긴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평균 3.08로 나타났다.
- 10)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정도는 평균 2.53로 나타났다. 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더 많이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였다($p<.05$).
- 11)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버리는 정도는 평균 4.01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높은 결과가 얻어졌다($p<.05$).
- 12) 먹고 남은 음식물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정도는 평균 2.16으로 나타났다.
- 13) 가정이나 밖에서 내가 남기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평균 3.53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p<.05$).

IV. 결론 및 논의

첫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느낌은 “더럽다”란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아깝다”, “걱정된다”, “아무생각 없다”, “기타”的 순서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오수로 인한 인식이 팽배한 듯하다. 음식물쓰레기가 단순히 “더럽다”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재활용될 소중한 자원으로써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한다는 인식으로 바꿔도록 해야 하겠다.

둘째, 초등학생들도 성인들 만큼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을 포함한 사회전반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정도는 무척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식물쓰레기가 무엇인지 분류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소양이며, 그 지역에 맞는 분류 기준을 꼭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실천행동에 앞서 생활쓰레기 처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인식은 낮으며, 이는 음식물쓰레기처럼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처리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초등학생들은 음식물을 먹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도 처리하는 것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으로 나타나며, 주거환경에 따라서 차등교육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넷째, 자원 절약 차원에서도 음식물의 유통기간을 고려한 적절한 량의 음식을 구입하는 습관이 생활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며, 유통기한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구입하지 않고, 구입한 음식물은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초등학생들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해 본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속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경험을 높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심

과 심각성 등을 체험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생활쓰레기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를 어느정도 잘 분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은 공동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있어 그렇지 않는 단독주택보다 더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과거보다 현재, 본인(초등학생)들이 만들어 내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좀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간 또는 주거지역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음식물쓰레기 관련 교육을 실시할때, 성 또는 주거환경의 따른 차이점도 고려된다면 보다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다양성이 요구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환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때에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응되는 음식물쓰레기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서 우리의 생활환경을 좀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추구해야하겠다.

V. 참고문헌

- 김지활 (2006). 주거형태 및 지역이 초등학생의 물에 대한 이해, 인식 및 사용실태에 미치는 영향.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장호 (2006).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석.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21(2), 149-161.
- 유기영 (1997a).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지방자치 102. 현대사회연구소.
- 유기영 (1997b). 음식물쓰레기감량 및 자원화방안. 서울시정책개발연구원.
- 환경부 (2004).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환경부 (2004).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